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6호 [무계 제25299호] 주체105(2016)년 6월 4일 (토요일)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일떠서고 있는 룡악산비누 공장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서고 있는 룡악산비누공장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바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시기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가지 물비누 등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비누공장을 룡악산기술아하고있는 인민군대에 맡겨주시고 짧은 기간에 건설을 다그쳐 끝낼수 있는 온갖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공장건설을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이 생산능력에 있어서 전국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고 품질에 있어서 세계적수준의 비누를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높은 목표와 야심을 가지고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공장에 현대적인 설비들을 완벽하게 갖추어놓으며 원료투입으로부터 혼합, 주입, 포장, 출하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들을 고도로 자동화하고 통합조종체계도 최상의 수준에서 구축해놓을뿐만 아니라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담보할수 있도록 첨단분석설비들도 그른히 차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원료와 우리의 향료를 가지고 여러가지 비누를 광범 생산하기 위한 기술준비사업을 다그치며 구매자들이 쓰기 편리하게 상품모양과 포장을 잘하기 위한 타산도 잘할때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아하고있는 인민군대에 맡겨주시고 짧은 기간에 건설을 다그쳐 끝낼수 있는 온갖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헌신함같이 펼쳐나선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연건축면적이 1만 8,900여㎡에 달하는 방대한 건축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난데 이어 지금은 설비조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건축공사가 끝났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일본세가 다르다고,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경도를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공사장을

둘러보시면서 비누공장을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룡악산비누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장, 우리 당이 완공을 기다리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의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공장건설을 위한 200일전투의 영예로운 참전자, 돌격투사답게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떨침으로써 당장 건기날인인 10월 10일까지 룡악산비누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훌륭히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시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선군조선의 역군으로 키우시기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어비사상에 떠받들려워 만경대소년단야영소가 아이들의 궁전으로 보환듯이 전 변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 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김수길동지, 조선로동당 평양시 만경대구역위원회 위원장 리일배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야영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예로부터 산봉우리가 마치 뿔이 굽시 하늘로 날아오르려는것같이 기묘하게 생겼다고 하여 봉악산이라고 부르고 경치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평양의 금강산이라고도 일러오는 풍치수려한 봉악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만경대소년단야영소는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파괴요양기지이다.



운동장 등으로 이루어진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개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만경대소년단야영소개건정형에 대한 보고 자료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는지 보문다고, 어렵고 힘든 개건공사를 진행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임실, 혁명사적물보존실,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소년단야영소만 놓고보아도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였으며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쓰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의 소년단야영소들과 소년회관, 소년궁전들을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리는 사업은 아이들을 위해 한평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

로 꽃피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울뿐만 아니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사랑을 실정에 세긴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당의 의도에 맞게 완전무결하게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몰려들이켰다.

평양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만경대구역 당위원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개건공사를 훌륭히 마무리할 계획을 세우고 뽕이 크게 일판을 벌림으로써 덩지가 큰 3개 호동의 야영각과 식당, 회관, 동물사, 직원합숙, 브르장, 야외수영장, 야외풍구장,

로 꽃피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3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현지도하시였다



## 2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소년단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과 운영준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순화장을 마주하고 높고낮은 산봉우리들과 키동음하며 햇빛이 잘 드는 남향밭에 락식으로 솟은 야영각의 침실들에 둘러서서 야영생들의 생활상편의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손색없이 잘 꾸렸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민속놀이장, 도서실, 회관 등을 돌아보시면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그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음먹고 개건한것이 알린다고 거듭 칭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호수우에

아담하게 솟아있는 식당의 식사실, 생일식사실, 야외식사실들을 돌아보시면서 동심에 맞으면서도 마치 배를 타고 식사하는 감을 느끼도록 특색있게 꾸리였다고 하시였으며 특히 조리실습실을 제손으로 받도 짓고 여러가지 음식도 만들어 먹을수 있게 잘 꾸리였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야외수영장의 수질상태도 알아보고 조각대의 높이도 가늠해보시면서 자연경치와 어울리게 물미끄럼대를 놓아주시겠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수영장을 떠나기 싫어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비가 와도 야영생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야영각에서 식당까지의 걸음길과 야외휴게장에 지붕을 띄워주시겠다고, 야영생들이 야영의 나날을 더욱 즐겁고 재미나게 보낼수 있도록 동물사에는 희귀한 동물들을, 보트장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가지 기제들을 보내주시겠다

는 온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야영소구내를 걸으시며 나무가 많고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들에는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아이들의 보금자리들이 솟아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정말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우리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응축된 아이들의 멋쟁이공진이 또 하나 보란듯이 솟아올랐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걸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을 하고있는 중요한 목적도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그들에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마련해주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영원히 높이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니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출람했다가 없이 정말 잘 개건하였다고 하시면서 개건공사에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자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조선로동당 위원장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경대소년단야영소건설개건을 통하여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이 뜨거우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평양시당위원회와 만경대구역당위원회의 사업열정을 높이 소개선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깊이 관심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있는 평양시당위원회와 만경대구역당위원회의 사업들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일은 사회주의본래를 살리고 사회주의우월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각 도당위원회들에서는 당정책을 자기의것으로 민감하게 받아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평양시당위원회의 일본색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이 밝게 웃어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면서 만경대소년단야영소가 훌륭히 개건된것만큼 조선소년단창립 70돐을 맞으며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여 이곳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이신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아바나

구 바 공 산 당 중 앙 위 원 회 제 1 비 서  
구 바 공 화 국 국 가 리 사 회 위 원 장  
구 바 공 화 국 내 각 수 상  
라 울 까 스토 로 루 스통 지

나는 생일을 맞는 당신에게 따뜻한 축하와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이 진강할것과 구바당과 정부와 인민을 명도하는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 선 로 동 당 위 원 장  
조 선 민 주 주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제 1 위 원 장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김 정 은 동 지

주제105(2016)년 6월 3일

평 양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민 주 주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위 원 회 제 1 위 원 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 고 사 령 관 이 신

김 정 은 동 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저희들은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당신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당신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당과 군대와 인민이 주체혁명위업수행과 사회주의장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불고나가는 활중대한 전략적선과 과업들을 대외결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용감하고 근면한 영웅적조선인민이 당신의 현명한 명도밑에 당대회에서 제시된 모든 과업들을 훌륭히 관철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은 제국주의세력들이 국제적압력을 가하고있는 복잡한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안전과 번영의 기초로 되는 대내외정책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이를 견지하면서 선군정치를 실시해나감으로써 오늘날 조선인

민을 위대한 세기적창조자로 이끄는 정치적추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저희들은 당신께서 현명성과 강의한 의지,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한 다방면적인 해박한 지식을 발휘하시며 앞으로의 활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실것과 사회주의와 평화, 친선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위업에 계속 공헌하실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성과를 경축하는  
로씨야 및 독립국가협동체나라 정당,  
단체들의 연합로론회 참가자일동

2016년 5월 30일

모스크바







#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돌파구를 열자

동해지구 농촌에서 기본전투의 모내기를 끝냈다는 혁신의 새 소식들이 편이 편히 전해지고 있다.

함경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많은 시, 군들에서 모내기를 보름 동안에 지어 얼음농탄에 끝냈다는 승전소식은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같이 총성의 200일전투에 펼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는것은 위대한 수평농탄의 유훈이며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

## 협동벌들에서 우리는 승전의 포성

### 동해지구 농촌들에서

동해지구 농촌들에서 협동벌들에서 우리는 승전의 포성을 울리는 포성이다. 협동벌들은 위대한 승전의 포성을 울리는 포성이다. 협동벌들은 위대한 승전의 포성을 울리는 포성이다.

이렇게 농고분 때 올해 알곡생산의 첫 돌파구인 모내기전투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동해지구 농업부문 일군들의 사업은 힘으로 많은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우레에 동해지구 농촌들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내기작업선진자를 지난 시기처럼 벼모가 모판에서 저런 기일이 아니라 풍물뽕, 모종유법기준수에 도달하게 되는 남자와 해당 지역의 기상 및 토양조건을 놓고 진행하였다. 그런데 5월 중순부터 기온이 높아지면서 벼모가 모판수에 비해 기준수에 도달하

게 되는 일수가 짧아져 지난 시기보다 많은 모를 내야 하였다. 파속된 모를 내게 되면 정보량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영농물자보급사업이 작기모방에서 선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로부터 도입근들은 시, 군들에서 모내기시작으로 농장마다 연휴, 농기계부족을, 양수기 등 작기모방을 위한 영농물자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줄도록 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두적으로 내리었다.

이 작업은 용담 결실을 낳았다. 총성의 200일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되어서는 모내기를 획기적으로 끝낼수 있었다.

함경남도에서도 지난 시기에 비해 모내기실적을 부쩍 높였다. 도에서는 총성의 70일전투기간에 트랙터와 모래는 기계수리정비팀 일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트랙터의 다이나, 배아름을 비롯한 농기계들을 충분한 비연하여 농촌들에 보내주었다.

하지만 도입근들은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최익의 역경에서도 최대의 성과와 최상의 전진을 이룩할 절로 더욱 분발해나섰다. 그들은 농기계들의 모내기에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대승을 두고 모내기전투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트랙

## 승림시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농업부문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총성의 200일전투로 부강 부강 끝났다는 승림시에서 모내기를 최적으로 끝냈고 있는 확고한 전망을 얻어냈다. 특히 모모식을 제때에 따라내는데 큰 힘을 넣어 그 성과를 담보해가고 있다.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파업관현을 위한 오늘의 총공작전에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깊이 자각한 시합농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이 농장들에서 한해농사의 성과가부가 크게 파우되는 모내기에서 속도대만 치우치며 모모식을 소홀히 하는 현상이 없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앞장서 이끌고 있다. 모든 농장일군들이 모내기를 제철에 끝내기 위한 기술순회회에서 모모식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인식하고 모내기 전진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제때에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인민혁명당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줄라는 각오를 안고 모내기의 불을 높여나가고 있다. 농장의 일군들이 한해 작업일과 함께 모내기가 조직사업을 민중들이 짜고들었다. 전진단인 포진들에서 모내기를 리용하는데 맞게 자정 자체제도를 철저히 세의 민포기가 생기는 현상을 면허히 줄이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

모한 분노를 책임감이 높은 3~4명의 농장일군도 모모식조를 조직하여 전적으로 맡게



농장원들을 당 제7차대회 파업관현으로 힘있게 불리워키고 있다. -함흥시 동흥산구의 용호농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특히 그들은 시, 군들에서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파업관현을 높이 받들고 70일전투에서 발휘한 농업근로자들의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모내기실적을 올려제 하였다.

이것이 운을 냈다. 실제로 회령시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모내기가 시작되자 10일 동안에, 김책시와 전주군에서는 보름도 못되어 전투를 계속 하였으며 도적인 모내기는 2일 현재 95%대선을 돌파하였다.

강원도의 농업부문 일군들은 모내기작업모판의 중요한 방도를 모내기선봉정부를 앞세우는데서 찾고 실적을 적극 마련해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지난 시기 불철약농법의 하나인 마른논베치기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모내기에 이랑짓기를 진행하여 정보량 알곡수확량을 600kg 이상 증수할 현상들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 물론베치기를 하면 10%의 물이 포진에서 빠질 때 휴양금이 200g 정도나 포함되어 있다. 결과 도양면적역이 낮아지게 되어 정보량 알곡수확이 감소된다. 그러나 마른논베치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을 막을수 있다. 특히 물은베치기보다 많은 기쁨을 얻으면서도 2배이상의 작업능률을 내는 마른논베치기는 토양특성에 관계없이 습도만 보장되면 아무나 할수 있다. 마른논베치기의 가동에서의 이랑짓기가 가지는 우월성을 인식한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군들은 농장들에서 이 방법을 적극 받아들일도록 하였다.

## 며칠안에 전부 끝낼 열의에 넘쳐

### 평안북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파업관현에 펼쳐나선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이 모내기전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는 6월 3일 현재 모내기를 기본전투의 93% 이상 진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방법을 일으켜 계획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 제7차대회 파업관현을 위한 투쟁에서 올해 알곡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에게 깊이 인식시키면서 그들이 모내기전투를 다그쳐 끝내도록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선진 영농방법인 이른모판을 전면적에 도입하는 조건에 맞게 모든 시, 군들에서 벼모기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끝내갈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베치기를 앞세워 모내기를 획기적으로 끝내도록 기술적지도에 힘을 냈다.

모내기전투에서는 영주군, 용천군, 신의주사가 앞서나가고 있다.

용천군에서는 논면적이 제일 많은 군의 실정에 맞게 역량을 총집중하여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내밀고 있다. 그리하여 5월 2일까지 95%의 논면적에 모를 냈다.

모내기의 성과적모판을 위해 모든 농장들에서 벼모를 온통히 키우고 베치기를 앞세우면서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였다.

삼형협동농장에서 기본전투의 모내기를 끝냈고 농장원이 많은 용호협동농장에서 도 역량을 집중하여 6월 2일까지 기본전투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 수호전투의 제1책대 제1선전포를 사수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진을 일으켜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 파업관현에 선안강이 펼쳐나선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이 모내기전투에서 편입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는 5월 29일 현재 모내기를 기본전투의 95% 이상을 완료하고 있다. 특히 트랙터와 모래는 기계수리정비팀 일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트랙터의 다이나, 배아름을 비롯한 농기계들을 충분한 비연하여 농촌들에 보내주었다.

하지만 도입근들은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최익의 역경에서도 최대의 성과와 최상의 전진을 이룩할 절로 더욱 분발해나섰다. 그들은 농기계들의 모내기에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대승을 두고 모내기전투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트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농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 수호전투의 제1책대 제1선전포를 사수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진을 일으켜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 파업관현에 선안강이 펼쳐나선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이 모내기전투에서 편입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는 5월 29일 현재 모내기를 기본전투의 95% 이상을 완료하고 있다. 특히 트랙터와 모래는 기계수리정비팀 일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트랙터의 다이나, 배아름을 비롯한 농기계들을 충분한 비연하여 농촌들에 보내주었다.

##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 꽃바구니 진정

민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조선소년단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이 3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헌정성 송고한 후대만, 미려관을 지니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지애로운 영상을 우리머리 대양영성의 언덕에 올렸다.

소년단대표들은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영연도록 무궁명향 주제조선의 꽃은 알남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상가 인사를 드리었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 모내기를 끝낸 단위들이 늘어난다

### 황해남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농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 수호전투의 제1책대 제1선전포를 사수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진을 일으켜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 파업관현에 선안강이 펼쳐나선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이 모내기전투에서 편입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는 5월 29일 현재 모내기를 기본전투의 95% 이상을 완료하고 있다. 특히 트랙터와 모래는 기계수리정비팀 일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트랙터의 다이나, 배아름을 비롯한 농기계들을 충분한 비연하여 농촌들에 보내주었다.

## 총련일군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만경대의 웅장한 영광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존귀하는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상가 인사를 드리었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묘의 정 표시

민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3일 장미꽃만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묘의 정 표시

민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3일 장미꽃만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묘의 정 표시

## 전국소년과학환상문예작품 및 모형전시회 - 2016 개막

조선소년단창립 70돐을 맞아 전국소년과학환상문예작품 및 모형 전시회-2016가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강성조선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역군으로 밀려올 수 있는 과학환상문예작품들과 모형, 프로그램 등 310여점의 우수한 창작품들이 출품되었다.

개막식이 3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피일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평년동맹일군들, 평양시내 학생소년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서기가 개막사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6일 남자	용담:기판장수부:형 양
7일 남자	소백수:경공업성
7일 여자	용담:4.25
8일 남자	리명수:리명수
8일 여자	리명수:리명수
9일 남자	리명수:리명수
9일 여자	리명수:리명수
10일 남자	리명수:리명수
10일 여자	리명수:리명수
11일 남자	리명수:리명수
11일 여자	리명수:리명수



